

# 74년 國際經濟 展望과 企業經營 方向

表 翰 慶

<서울女子大學教授>

## I. 새로운 視角과 問題意識

지난 해 韓國經濟, 企業 그리고 家計는 매우 중요한 경험을 치루었다. 전체 經濟는 지난 해의 原因과 對策에 대해서 諒과를 잡을 수 없었고 不況下에서는 예상할 수도 없었던 急伸張한 輸出景氣에 이끌리어 高成長을 이룩하였다. 이의 내용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총체적인 <表-1> 73年(9月)의 國內 經濟活動

	基 準	成長率(%)
經濟成長	1/4	19.1
産業生産	2/4	19.3
(製造業)	73.9/72 平均	4.50
	( " )	48.4
輸 出	73.1.9/72.1-8	89.4
輸 入	"	67.4
建築許可	73.1-9/72.1-9	94.1

資料: 韓銀統計月報(1973.11)에서 作成

經濟成長 19% 수준은 72년 2/4 分期 3.6%에 비하면 가위 폭발적인 高成長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企業은 72년까지 움츠렸던 姿勢에 마치 용수철이 걸린 듯 施設擴張 一邊倒로 치달렸고(建築許可面積 伸張率 94%에서 類推) 그것은 産業生産擴張, 끊임 없는 輸出信用狀 來倒의 밝은 전망으로서 勇氣百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經濟界와 家計는 戰後 25년에 한번도 겪지 않았던 사실에 부딪혔다. 즉 지난해 7월 美國의 農産物輸出制限波動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겪고 있는 中東諸國의 石油類制限 供給 충격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局面은 우리의 經濟나 企業의 對外依存深度가 구조적으로

定着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우기 올해의 輸出主導 景氣가 그에 못지 않은 輸入의 激增을 수반하고 있다는(73.7/73.9 輸入 67.4% 增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위 「國際經濟 속의 韓國經濟와 企業」이라는 命題를 단순한 標語的 次元에서 事實認識과 對處의 次元으로 보다 具體化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겠다.

오늘날 國際經濟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가위 살벌하리만큼 自國保護의인 치열한 各축전을 벌이고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닐 만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各國의 變動換率制를 主軸으로 한 國際通貨秩序의 混亂, 이것은 自國 國際收支 방어를 위한 모든 수단의 독자적인 發動의 신호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輸出伸張·輸入抑制을 위한 換率 公세, 關稅戰爭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겪는 資源戰爭으로까지 발전하여 資本制經濟의 최후의 보루인 「市場 經濟의 價格媒介機能의 정지를 위협하는 사태에까지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아슬아슬한 境界點에 처해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下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戰後 케인즈 理論에 입각한 雇傭增大 중심의 數量景氣의 追求와 開發途上國의 量的成長 중심의 開發計劃의 추구에서 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더욱더 警戒해야 할 사실은 高賃金—高生産 코스트—低生産性—인플레 加速化線으로의 진행 성격을 띄고 있는 先進諸國 인플레의 開發途上國 輸出과 그 결과로 빚어지는 先進國의 상대적 國際競爭力 優位와 後進國의 對外競爭力 역압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多國籍 企業의 登장이 國際經濟 秩序를 근본적으로 뒤 흔들고 있다. 全世界 總生産의

15%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이들 多國籍 企業은 그들의 거대한 獨占力으로 끊임 없는 國際 인플레이의 부재질 產業과 市場分割에 의한 국제 경제의 自由競爭을 硬直化시키는가 하면 對開發途上國의 全產業을 下請的 從屬體制로 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多國籍 企業과 우리의 企業界의 관계는 관심의 焦點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對外合作投資는 經濟成長, 技術開發 그리고 雇傭增大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施設과 原料를 비싸게 팔고 보다 값싼 제품을 수입하자는 냉혹한 자본의 競爭이라는 면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앞으로 國際經濟의 신장이 위축된다면 이들 多國籍 企業의 치열한 경쟁, 資本, 技術 그리고 資源의 인위적 제한에 의한 國際經濟에 있어서의 불황의 危險餘波를 고스란히 전가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韓國經濟와 기업은 現下의 發展位置나 체질로 보아 輸出主導의 선에서 일보도 후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國際經濟 환경은 인플레이, 資源制約 그리고 거둬를 점칠 수 없는 多國籍 企業의 행동 등 위험한 與件만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先進各國의 74年 國內經濟 전망은 量的인 경기가 후퇴할 것이며 世界貿易도 새로운 自國保護中心 強化의 秩序再編의 격동기를 맞지 않을까 짐짓고 있다.

이제 이같은 國際經濟의 구조와 秩序再編의 과도기적 樣相을 直視할 때 금후의 輸出主導經濟成長의 추기도 이른바 변형하는 國際經濟體制에의 일방적인 編入이라는 종래의 固定觀念과 直進的인 자세에서의 轉換·탈피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개별 企業經營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만약 금후에 닥칠지도 모를 輸出의 停滯는 단순한 一時的인 현상이 아니라 각 企業의 經營活動을 그 기반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보다 次元이 다른 현상이라는 것을 銘心하여 政策當局者는 물론 특히 民間企業의 이에 대한 사절적인 對備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II. 스태그플레이션의 새로운 국면

1973년의 國際經濟와 先進各國의 景氣展望은

자칫 恐慌直前까지의 위험한 사태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學界·言論界의 공통적인 觀測이다. 戰後 25년 동안 약간의 굴곡은 있었을 망정 확대와 成長一路에 있던 國際經濟가 이제 새삼 古典資本主義의 공황마저 예상케 함은 단적으로 말하여 소위 物價上昇下の 景氣沈滯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완전히 定着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의 深化를 예상케 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表-2>, <表-3>은 현재 全世界가 겪고 있는 油類波動이 본격화하기 이전의 세계 주요 先進國의 經濟成長과 物價와의 實績과 전망을 예측한 것이다. 문제는 하나 하나의 計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計數의 뒤에 숨어 있는 國際經濟의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1974년의 國際經濟 전망은 두가지 점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成長率의 감퇴나 物價의 上昇이 趨勢的이고 持續的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사실은 成長率의 減退와 物價上昇의 乖離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래의 經濟常識이나 經濟理論대로 한다면 經濟活動과 物價는 같은 방향으로 치닫기 마련이었다. 즉 數量景氣와 價格景氣는 최소한 市場經濟原理를 전제로 하는 한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의 벌어짐,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여 國際經濟의 市場的 競爭原理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 원인은 ① 先進產業構造의 寡占的 硬化와 獨寡占價格에 의한 가격의 신축성 상실 ② 國家財政金融에 의한 성장과 雇傭의 확대에 앞지른

<表-2> 主要國의 實質成長率 展望 (單位: %)

	美國	日本	西獨	프랑 스	英國	OECD 計			
						5 個 國計	實質	物價 上昇	名目
1971	3.2	6.2	2.8	5.5	1.4	3.6	3.6	6.2	10.0
1972(推計)	6.1	9.2	3.0	5.5	1.1	5.7	5.5	5.7	11.5
1973(豫測)	6.2	12.0	5.7	5.7	5.7	6.8	6.7	7.2	14.4
1974( " )	3.2	6.9	4.6	5.4	3.6	4.1	3.9	5.8	9.9
74上半期	2.9	5.7	4.0	5.5	3.3	3.7	3.6	6.0	9.8
" 下半期	3.2	9.0	4.5	5.0	4.0	4.4	4.3	5.5	10.0

資料: 日本野付統計研究所 調査

인플레이의 造出 ③ 國際通貨體制 붕괴, 특히 弗貨의 平價切下에 따른 국제적인 換인플레이의 擴散 등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의 특징은 스태그플레이션 現象이 先進各國의 개별적이 아닌 동시적이라는 점과 이른바 價格景氣 자체가 限界點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GNP의 15%를 생산하고 있는 多國籍企業의 출현으로 경제적 國境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文字 그대로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多國에 걸쳐 있는 生産·販賣·原料·技術面의 獨寡占의 企業體制는 成長이나 物價動向의 동시성을 나타낼 道理밖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價格景氣의 限界點 그것은 先進諸國의 自國保護의인 國際收支 壓迫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OECD 諸國의 1974년 1/4 分期의 各國 經常收支 展望은 美國·카나다·오스트랄리아가 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黑字諸國의 그 幅도 1973년의 豫測에 비해 크게 줄어 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각국의 國際均衡의 危險水位는 필연적으로 先進諸國으로 하여금 인플레이——生産性低下——自國通貨의 競爭力弱화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先進各國이 공동적으로 취하고 있는 總需要 抑制政策과 所得政策인 것이며 이와 같은 정책은 때마침 에너지 波動과 겹쳐 더욱 강화될 전망이 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表-3> 主要國의 物價上昇率 (單位: %)

		1970	1971	1972	1973		
					1月	3月	5月
美國	都賣物價	3.7	3.2	4.6	7.1	10.5	12.9
	消費者物價	5.9	4.3	3.3	3.7	4.5	5.7
英國	都賣物價	6.5	8.2	5.5	6.4	6.6	7.9
	消費者物價	6.4	9.4	7.1	7.7	8.2	9.5
西獨	都賣物價	5.9	4.7	3.2	4.8	5.8	6.2
	消費者物價	3.8	5.2	5.8	6.5	6.9	7.9
프랑스	都賣物價	11.2	-1.3	4.6	9.2	11.0	12.0
	消費者物價	5.5	5.6	5.8	6.5	6.2	7.2
日本	都賣物價	3.6	-0.7	3.1	7.6	11.0	12.2
	消費者物價	7.6	6.1	4.5	6.2	8.4	10.9

資料: 産銀調査月報, 1973. 8

### III. 資源 내셔널리즘과 國際經濟 展望

오늘날 각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深化되는 가운데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自國保護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自國優位의 가위 新重商主義的 激戰場 같은 感을 不禁케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資本·技術 그리고 貿易協力에 의한 相互 번영은 이제 한낱 화려했던 과거의 구호가 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낡은 秩序와 理念 붕괴의 구체적 樣相은 數量景氣가 最底點까지 후퇴하는 것을 전제로 多國籍 企業과 價格景氣와의 共存이나 아니면 근본적인 體制의 再編이나 하는 갈림길의 정후로 특징지워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후 韓國經濟가 이와 같이 격동하는 國際經濟에 대처할 방향을 잡기 위해서 國際經濟 展望을 판단하는 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① 先進國景氣가 동시에 후퇴할 경우 國際經濟의 波及樣相 ② 國際 인플레이下의 多國籍 企業의 새로운 經營行態 ③ 資源 내셔널리즘과 이의 獨寡占體制가 開發途上國 成長에 미치는 制約樣相 등 다면적 方向에서 接近하는 複合視角을 整理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주요 先進諸國의 學界 또는 經濟專門家들의 공통된 견해는 1974년의 經濟成長(數量景氣)의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의 동시적 後

<表-4> OECD 諸國의 經常收入 實積과 展望 (單位: 10 億\$)

	1971	1972	1973	1974(1/4)
카나다	0.39	-0.58	-0.55	-0.40
美國	-2.82	-7.68	-5.50	-2.30
日本	5.80	6.66	4.80	2.05
오스트랄리아	-0.90	0.34	0.50	-0.05
프랑스	0.53	0.27	0.95	0.70
西獨	0.17	0.41	0.85	0.20
伊太利	2.03	2.57	2.00	1.75
英國	2.56	0.07	-1.65	0.70
벨기·룩셈부르크	0.45	1.30	1.65	0.90
和蘭	-0.17	1.05	1.10	0.65
其他 EC 國	-0.63	-0.20	-0.35	-0.25
總 OECD	7.37	4.77	5	3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1973. 7

退는 世界經濟를 準恐慌의 상태에까지 파급시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다. 經濟 理論으로 보아 경기의 後退局面은 生産·雇傭·所得의 上昇의 成長이 停滯하는 리세션(recesion)과 더 나아가서는 企業의 倒産, 大量的 失業 그리고 株價의 額面 이하로의 폭락 등의 사태로 진전되는 恐慌(crisis)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1974년의 國際經濟의 전망을 굳이 이 中間인「準恐慌」으로 보고자 함은 다음과 같은 事實進展에 입각하고 있다. 즉 이미 오늘의 石油波動 이전에 先進國經濟는 1973년의 財政·金融的 過慾景氣의 결과 國內 인플레이와 國際通貨秩序의 혼란——거기에 따른 總需要 抑制政策으로 3~4%의 經濟成長水準으로 소위 경기가 진정될 것으로 豫測하였다. 그러나 이번 中東戰 이후의 石油의 政治的인 동기에 의한 供給制限은 오늘날 先進國의 産業·技術 및 製品의 中軸體制에서 이미 産業成長과 에너지 消費增加가 正比例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石油에너지의 供給制限은 物量的·技術的 要因面에서 生産規模의 축소, 大量 失業을 造出하는 조건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었고 또는 政治與件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는 特異한 오늘의 現實狀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거 資本主義經濟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局面——科學·技術에 의한 代替原料革命의 한계성을 전제로 脫植民地 體制의 資本主義的 生産體系의 파탄은 이미 케인즈의 財政·金融政策에 의한 景氣後退의 방지에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사실로서 世界經濟를 이끄는 機關車라고 볼 수 있는 美國, EC 諸國 그리고 日本의 現今의 公同적인 현상은 ① 自動車·鐵鋼·化學工業 등 重化學先導産業의 조업 내지 生産規模의 人爲的 축소 ② 8% 이상의 大量 失業의 전망 ③ 外貨保有高의 격감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와 같이 機關車經濟가 停止 直前的 徐行을 하기 시작하면 이에 이끌리어 加速度까지 붙은 餘他 開發途上國이 받는 急行에서 徐行에로의 反轉에서 오는 對외적 충격과 國內적 波及 영향은 先進國의 그것에 견주어 類가 아닐 것이다.

첫째는 先進國 인플레이의 擴散에 의한 타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先進各國 인플레이의 對後進國의 수출은 이미 71년 12월의 달러 評價切下에 따른 基軸通貨體制의 혼란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73년의 原資材波動 이후에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으며 현하의 石油波動은 그 결정에 이른 感이다.

따라서 先進國 인플레이 資源 내셔널리즘 그리고 여기에 가세한 國際 巨大資本에 의한 資源 生産·供給의 獨寡占體制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資源戰爭은 原資材中 國際獨寡占價格의 끝없는 上向操作——多國籍 企業에 의한 高價原資材의 投機的 供給——競爭對象國 또는 企業의 原價高 및 競爭力 약화의 선으로 발전하여 先進國의 國際收支改善 또는 多國籍 企業의 獨占利潤 確保로 과급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둘째로 準恐慌의 苦境下의 景氣後退의 모든 副作用은 先進國과 資本·技術 그리고 貿易面에 있어 聯關關係를 맺고 있는 開發途上國에 모두 轉稼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開發途上地域에 편제된 石油를 위시한 모든 天然資源의 정책적이고 量的인 供給制限 그리고 先進諸國의 國內 인플레이 극복을 위한 總需要 抑制政策은 先進諸國 巨大

<表-5> 原資材 國內導入價 변동 (單位: \$)

品 目	72	73(1~6)
古 鐵	53.30	71.36
銑 鐵	57.18	82.02
합 코 일	108.84	132.46
鐵 鋼 板	91.63	114.57
망 간 鑛	36.94	68.58
銅 鑛 石	197.11	270.01
銅 屑	979.10	1,032.78
알 루 미 나	83.15	87.30
生 고 무	347.42	496.96
合 成 고 무	372.85	401.03
필 프	111.09	129.64
牛 脂(工業)	219.95	243.76
” (食用)	195.64	282.93
原 綿	181.30	166.47
原 油	15.02	15.91
原 木	31.49	64.97

註 ① 가격은 CIF 가격, 年中平均値 ② 原木單價는 나왕·美松·기타 木材 평균치 ③ 食用牛脂·原木은 9월 말 현재 數值 ④ 原綿은 千匁, 原油 千 l, 原木 千 m, 其他는 噸

系列企業의 低生産部門의 切斷을 가져 옴과 동시에 이의 利潤 저하의 돌파구를 적극적인 對外輸出에서 구하고자 할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된다면 이른바 多國籍 企業의 開發途上國의 第3國輸出基地化의 經營戰略은 輸出市場化의 方向으로 반전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開發途上國의 國際收支赤字의 가중적인 압력이 될 뿐 아니라 輸出主導型企業의 절대적인 타격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보겠다.

세계 이와 관련하여 소위 先·後進國間的 經濟協力の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예측된다. 先進 각국의 對外流動性的 激減과 國際通貨體制的 혼란으로 정부의 IMF 방식에 의한 資本協力は 가일층 제한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民間企業에 對해서 입각한 資本協力は 借款보다는 多國籍 企業에 의한 直接投資擴大의 方向으로 전개될 것이다.

오늘날 多國籍 企業은 資源·技術獨占 그리고 貿易과 國際資本移動의 企業적 바탕에서의 조종으로 지위되고 있다. 말하자면 施設·技術·原料 그리고 資金을 비싸게 팔고 싼 製品을 사가는 二重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多國籍 企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현지에 새로 企業을 創設하기 보다는 既存企業과 합작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特長적 經營形態였다.

따라서 이같은 先進國의 多國籍 企業은 開發途上國에 직접 진출함으로써 稀少의 原資材 供給에 의한 高價製品의 現지 販賣에 의한 利潤率의 提高 또 한편으로는 原資材 供給의 독점적 保有力에 의한 보다 저렴한 自國供給品의 輸出産業 獨占化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開發途上國의 多國籍 企業을 先導로 한 經營·技術의 誘發의 향상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기대했던 의존적인 國際市場進出은 그 양상이 이른바 多國籍 企業의 自己保護力 강화에 따른 주름살이 그것이라 할 것이다.

#### IV. 74年 企業經營 方向

74년의 韓國經濟와 企業은 최초로 弱肉強食의 資本主義的 國際經濟의 세차고도 냉혹한 흐름에

직접 부딪치게 되었다는데 보다 심각성이 개재하고 있다. 先進諸國의 國際인플레이의 擴散, 擴大 成長의 制動 그리고 資源寡占體制와 投機的 價格引上の 세가지 문제는 소위 戰後의 자본 및 貿易協力の 상호 繁榮體制의 증식을 고하는 신호인 지도 모른다. 정치적인 冷戰體制가 戰後 國際資本主義體制的 再編成期였다면 1970년 이후의 國際政治의 多元化體制에로의 변모는 國際獨占利潤追求를 위한 경쟁과 支配 시대로의 이행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혀 次元이 다른 國際經濟의 새 條件下에서 韓國經濟와 企業은 그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輸出主導의 重化學工業의 개발이라는 産業發展方向의 調整與否의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와 같은 産業發展은 戰後的인 資本·技術協力體制的 存續과 世界貿易의 확대성을 절대적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은 新重商主義的인 自國保護 내지는 支配體制로 완전히 변모할 것 같다. 여기에 대처하는 방안은 對外依存的인 輸出主導——重化學工業에서 自給的인 輸出伸張과 自立完結的인 重化學工業化에로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國際收支 赤字가 量的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黑字로 전환될 것이라는 成長的 成熟을 보장도 않거니와 시간적 여유가 없다. 現水準에서 國際收支 黑字 달성의 完結的 成熟으로 향한 質的轉換이 요청된다. 오늘의 先進國型的 重化學工業開發은 資本·資源面에서 결정적인 계동이 걸리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資本·技術·資源面에서 철두철미한 自給條件이 가능한 重化學工業開發에로의 과감한 方向 전환을 이룩할 도리밖에 없고 기존 輸出産業의 稼得外貨에 의한 輸入은 基礎原資材導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74년의 企業經營은 國際經濟의 이상적인 불황에 대한 適應力이 본격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60년 이후 韓國의 企業經營은 國際經濟的인 측면에서 보면 溫室에서 커나온 것이나 다른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輸入對替——

輸出企業으로서의 韓國의 企業成長을 뒷받침한 外資 및 技術의 지원적 협력은 경제적 관점과 自國 國際流動性 不足에 따른 극히 제한된 공급으로 전환될 징후에 비추어 外資依存的 經營展望은 이제 한계에 다달았음을 깊이 銘心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적인 코스트 인플레이, 原油價에 집중되어 있는 資源 코스트의 절대적인上昇은 소위 低賃金 코스트에 의한 外資誘致의 매력이나 값싼 輸出品의 공급이라는 中間生産據點으로서 韓國企業의 이점이 소멸될 단계에 처하여 있음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지금까지 불리한 外資金利, 類例 없는 施設材 代價나 技術 로 알티를 지불하고서도 유일한 低勞賃差益에서 구하였던 企業의 利潤追求方式은 완전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加工賃 利潤追求型的 企業經營에서 生産성과 성장의 源泉에 의한 이윤 추구라는 뼈아픈 企業體質의 탈피가 74년의 國際不況을 뚫느냐 못뚫느냐 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自國 인플레이의 擴散, 資源 내셔널리즘에 편승한 國際獨占資本의 原資材價格의 무제한 上向操作 그리고 직접적인 數量供給의 制限, 그것은 開發途上國 企業의 加工賃의 存立基盤을 근본적으로 흔들고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끝으로 74년 이후의 한국의 企

業經營은 그 社會經濟的인 위치가 새삼 크게 문제될 것이다. 原資材 코스트의 압박, 輸出의 停滯, 그 결과 기업들의 돌파구는 코스트 인플레이 壓力의 消費者 轉稼에 의한 소위 국내 인플레이 利潤에 의한 企業經營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企業의 國內 인플레이 利潤에 의한 經營存立의 조건은 絕對所得水準이 最少生存線을 상회하여 이루어져 있고 또한 所得의 不平等이 소위 中産層 健全化의 선에까지 완화되어 있음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企業經營人은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두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與件下에서의 企業의 인플레이 利潤 추구는 安定恐慌——過多在庫의 선에서 企業은 완전한 過剩生産의 渦中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새해 韓國企業은 原價高, 原資材의 壁 그리고 國內外市場의 縮少可能性 등 극히 불투명한 요소만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서 탈출하는 방향 그것은 기업을 현재의 수준과 규모에서 成長力을 再點檢, 內實強化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國際不況을 타개하는 원동력으로서의 기업이 先導하여 國內市場의 潜在力을 強化, 育成하는 새로운 經營戰略과 社會性を 企業 자체를 위해서 확립해야 할 것이다.